

도내 유일 강원에코홈페어 오늘 개막

나흘간 춘천 호반체육관
최신 건설·건축기술 한자리

강원에코홈페어2016-주택·건설·건축박람회가 26일 개막한다. 강원 에코홈페어는 도내 유일, 최고의 주택·건설·건축 분야 박람회로 2010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이번 박람회는 26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나흘간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다. ▶관련기사6면
올해는 강원도와 춘천시를 비롯한 17개 시·군이 박람회에 참여하며 일반 기업 총 40여개 업체에서도 전시 부스를 마련, 모두 70여개 부스를 선보인다. 전시품목은 개인 가정의 가구나 조명, 실내 인테리어 소품을 비롯해 건물 및 주택 디자인,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친환경 제품 등이다. 강원에코홈페어

2016-주택·건설·건축박람회 사무국은 전시회 기간 도내·외 건설업체 CEO를 비롯해 건축사, 토목설계사, 도·시·군 및 공공기관 관계자, 건설·건축 관련 학과 대학생, 주민 등 연인원 1만명 이상이 전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람회 사무국 관계자는 “이번 강원 에코홈페어 기간 업체 간 교류는 물론 판매·계약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판로 개척 및 시장 진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우윤기자 faw4939@kwnews.co.kr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건설공사에서 태풍·홍수·지진 등 천재지변과 도급인(발주자)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수급인(시공사)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국가계약법도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통해 필요한 경우 공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자

국가계약법 이어 산안법도
천재지변 발주처 책임으로

자연 사유발생 때 가능 규정

가 공기 연장을 탈가워하지 않는 게 문제다. 감사원 등 사정 당국으로부터 시공사 편의를 봐준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을연' 건설사는 공기 연장을 발주처에 요청하기 쉽지 않았다.

게다가 국가계약법은 공공발주 공사

만 적용돼 민간 발주 현장에서는 사실상 공기 연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결국 건설현장에서는 공기 연장 대신 인원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돌관 공사도 정해진 공기를 급하게 맞추는 일이 많았다. 그 결과 6월 말 기준 건설현장 내 사망자는 262명으로 업종 최고다.

고용부 관계자는 “적정 공사기간을 보장해 주고, 정당한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건설 재해를 줄어지는 제법안의 핵심 취지다”라면서 “그러나 이 법

안을 근거로 건설사가 '갑'인 발주처에 열마나 공기 연장을 요청할지는 여전히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염려와 달리 업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종원 건설안전임원협의회 회장(대우건설)은 “발주처 입장에서 공기 연장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건설재해가 사회문제로 확대된 만큼 시공자나 발주자 모두 공기 연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기자 yss@